R&R 27(2021) 279-306 https://doi.org/10.36365/kukirs.2021..27.279

이상규 박사의 역사관과 교회사 연구

신민석
(시드니신학대학, 외래교수, 교회사)

Ⅰ. 서론
Ⅱ. 역사철학(사관)
Ⅲ. 교회사 연구 분야
Ⅳ. 결론

[초록]

이상규 박사는 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뛰어난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이다. 2018년 2월 은퇴하기까지, 그는 공저와 편저를 포함해 총 57권의 단행본을 저술했고 177개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의 다작으로만 봐도 학자로서의 일가를 이루었음에 분명하다.

이상규가 일관되게 추구한 역사관으로 세 가지 원칙을 말할 수 있다. 첫째, 그는 통합사적 접근을 시도했는데 이는 본류로 비유되는 서양교회의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이해하고 또 서양교회의 전통과 유산을 한국교회의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둘째, 그의 교회사 이해는 16세기 개혁주의 전통에 서 있었고,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위에 서 있었다. 셋째, 그는 사료와 사실에 정직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객관적 사실의 서술을 노력해왔는데, 이런 그의 연구는 실증주의 연구방법의 본을 보였다.

그의 연구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고신교회사 연구인데 초기 대표적인 작품인 『한상동과 그의 시대』(2006)는 인물 중심의 연구서이다. 둘째, 부산, 경남지방 교회사 연구로 당시 이 지역 기독교 운동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했다는 점에서 그의 연구는 개척의 길이었다. 셋째, 16세기 종교개혁사도 그의 주요한 연구 분야로, 『교회개혁사』(1997), 『종교개혁의 역사』(2016),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2017)를 출간했다. 후자의 두 권은 청소년 세대와 일반대중을 위해 간명하고 평이하게 기술한 작품이다. 넷째, 그는 초기 기독교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23편의 논문을 기초로 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2016)는 주요 연구서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는 호주장로교의 한국선교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의 박사학위과정 연구 결과인, *To Korea With Lov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2009)는 2009년 호주빅토리아장로교 150주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서적이다. 이상규 박사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소중히 여기며 학문적인 영영과 삶에서 그 소명을 이루어 간 교회사의 '큰 산'으로 평가할 수 있다.

키워드: 이상규, 교회사, 통합사적 견해, 개혁주의, 호주 선교, 초기 기독교

논문투고일 2020.07.20. / 심사완료일 2021.02.25. / 게재확정일 2021.03.02.

I. 서론

이상규 박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사 연구가, 탁월한 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1982년 연구조교로 임명받은 후부터 2018년 2월 은퇴하기까지 36년간 고신대학교에서 가르치며 연구했으며, 2019년 3월부터는 백석대학교 석좌교수로 임명되어 학문의 외길을 걷고 있다. 은퇴하기까지, 이상규는 공저(27), 편저(5) 모두 포함해 총 57권의 단행본, 177개의 학술논문을 썼고, 번역으로는 5권의 단행본과 15개의 논문이 있다.[1] 다작(多作)으로만 봐도 교회사학자로서 일가(一家)를 이루었음에 분명하다.[2] 다산 정약용은 머릿속에 5,000권의 이상의 책이 들어있어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했던가. 이상규는 개인 장서가 2만권에 이른다고 하니 역사를 꿰뚫는 뛰어난 그의 통찰력과 균형 잡힌 시각은 다독(多讀)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상규는 특히 교회사학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강연하며 노력해왔는데,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그의 신앙에서였다. "그의 신학이나 가르침이나 저술이나 모두 교회를 위한 신학이었다" 라는 박용규의 평가는 이를 잘 반영한다.[3] 한국교

---

* 본 논문 본론의 내용은 "이상규의 생애와 신학," 『한국의 신학자들 1권』 (이레서원, 2021년 발간 예정)에도 수록됨을 미리 밝혀 둔다.

1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부산: 카리타스, 2018), 40-51에 있는 저작목록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글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 저작목록을 가리킨다.

2 은퇴 후 그가 기고한 논문으로는 "부산일신여학교에서의 만세운동," 「부경교회사연구」78(2019), 10-19; "삼일운동과 한국기독교," 「백석저널」36(2019.6), 37-70; "3.1운동, 어떻게 볼 것인가?," 「신학과 교회」11(2019), 11-50; "서구기독교전통에서 본 '기독교문화' 이해," 「부경교회사연구」 82(2019), 28-53; "한국기독교와 민족, 민족주의," 「개혁논총」 49(2019), 9-33; "이보민 박사의 생애와 신학," 『한국교회를 빛낸 칼빈주의자들』 (용인: 킹덤북스, 2020), 558-81; "교회는 중혼자(重婚者)를 받아드릴 수 있는가?" 「동서신학」 2(2020), 11-39가 있다.

단행본 저술로는, 『기억과 추억의 역사: 부산지방에서의 초기 기독교』(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 2019), 공저로는, 『해방 후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활동』(선인, 2018); 『3.1운동과 기독교민족대표 16인』(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 대담으로 읽는 역사』(한국교회와 역사 연구소, 2019); 『호주 선교사열전, 진주와 통영』(동연, 2019); 『한국교회와 대구, 경북지역 3.1운동』(정류아카데미, 2019);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다함, 2020), 편저로는 『일본인이 본 주기철 목사』(한국교회역사연구소, 2019)가 있다. 또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의 개정판이 2020년 SFC를 통해 출간되었다.

3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장로교회와 신학」 13(2017), 17.

회를 위한 그의 중요한 봉사는 강연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도 나타났다. 그의 저작물 중 눈에 띄는 두 권이 있는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2006), 『구약의 메시지』(2013)가 그것이다. 전자는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연대기적 순으로 한 33편의 설교집이고, 후자는 구약성경 각권을 순차적으로 강론한 것으로 역시 33편의 설교문이 담겨 있다. 그의 설교에는 교회사적인 혜안이 늘 들어있다. 이를테면, 예수의 생애에 대한 성경 밖의 증거를 설교하면서 요세푸스와 로마 문필가(타키투스, 플리니, 수에토니우스)의 증언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본문에서 18세기 클레펌의 사람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원수도 사랑하라는 메시지에서 16세기 위렘스의 감동적인 순교의 이야기를 예화로 든다.[4] 청중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사와 더불어 본문이해를 더해 가는데, 박응규의 지적처럼 그는 "심오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역사 이야기꾼"으로 교회사를 대중화시켰다.[5]

이상규의 생애를 비롯해 신학과 학문을 연구한 여러 편의 글들이 그의 은퇴시기를 전후에 나타났다.[6] 이들 연구에서 생애를 다룬 내용은 대부분 이상규가 직접 작성한 자서전적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7] 박응규는 그의 주요 학술 논문들을 특히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정리했는데, 이상규의 학문적 관심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다.

---

4 이상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부산: 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 2006), 11, 107, 158-59.

5 박응규,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 이상규 박사의 학문여정에 관한 소고(小考),"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99.

6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응규,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 이상규 박사의 학문여정에 관한 소고(小考)," 「개혁논총」 44(2017), 25-63; 우병훈,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 성경 중심적, 사회학적, 교회 중심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9(2017), 245-86; 김홍만, "이상규 박사의 생애와 신학사상," 안명준 외, 『한국의 칼빈주의자들』(용인: 킹덤북스, 2019), 1037-64.

그리고 2018년 초에 발행된 그의 은퇴문집에 여러 편이 실렸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탁지일, "교회사학자, 그리스도인, 현대인 이상규," 109-19; 이정석, "역사와 신학: 역사관에 관한 일고찰," 131-50; 주강식, "이상규 박사의 교회사학 연구," 151-65 등을 들 수 있다.

7 이상규 박사는 자서전적 기록을 은퇴문집인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제1부(학문의 세계) "내가 살아온 날들 – 나의 수학(受學 修學 授學)기 – Apologia pro vita mea"라는 제하(題下)에 남겼다. 여기에는 그의 생애와 신학, 학문을 다룬 8명의 필자들의 글들도 함께 실려 있다. 제2부(순례자의 여정에서 만난 이상규 교수)에서는 그를 아는 44명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주강식은 그의 연구 분야와 학문적 공헌을 크게 다섯 가지(호주장로교회의 한국 선교사, 부산경남지역 교회사, 고신교회의 역사,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초기기독교)로 정리했는데, 역시 각 분야별 연구를 주제별로 한 눈에 읽을 수 있다.[8] 우병훈의 글은 그의 두 작품(『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와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에 근거해, 이상규의 초기 기독교회사 연구를 집중 분석했는데 성경 중심적이며, 사회학적이며, 교회 중심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9] 이들 각각의 주요 연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관과 연구 분야를 구별해 논하면서도 동시에 모두를 살펴볼 수 있는 정리된 연구가 필요한데, 본 글은 이런 의도에서 쓰여졌다. 특히 이상규 박사가 일관되게 추구한 역사관의 경우 그의 저작물에 담긴 내용에서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본 연구에서는 고찰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이상규의 역사관과 관련해서는 그가 주요 토대로 여긴 세 가지 원칙을 논할 것인데, 통합사적 관점,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 그리고 실증주의 역사관의 태도로 그가 어떻게 사료와 사실에 정직한 연구를 펼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난 뒤, 이상규의 연구 분야와 관련해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 논할 것인데, 그가 몸담았던 고신교회 역사,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부산경남지방 교회사, 첫 작품인 16세기 교회개혁사, 본래의 기독교 모습을 제시한 초대교회사,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라 볼 수 있는 호주장로교의 한국선교 분야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그의 역사관과 연구 분야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그의 사관이 실제적으로 그의 교회사 연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가 이룩한 학문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칫 약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II. 역사철학(사관)

역사가의 임무는 기록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historiography)를 통해

8 주강식, “이상규 박사의 교회사학 연구,” 151-65.
9 우병훈,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 245-86.

사실로서의 역사(history as past fact)를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기술된 내용은 역사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해석과 평가 역시 그의 몫이 된다. 교회사가가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사건일지라도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교회사가의 역사철학(사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규 박사의 경우, 세 가지 원칙을 주요 토대로 하고 있는데, 통합사적 관점과 개혁주의 신학이다. 또한 실증주의 역사관의 태도로 사료와 사실에 정직한 연구를 펼쳤다.[10] 먼저 그가 추구한 통합사적 관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1. 통합사적 관점

이상규가 말한 통합사적 접근(integrative approach to history)이란 "한국교회의 역사를 서양교회의 눈으로 읽고, 서양교회의 유산을 한국교회의 눈"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11] 교회사 전반에 대한 그의 폭넓은 연구에서 얻은 안목으로, 지류, 개별성, 특수성, 고유성으로 표현되는 한국교회를 본류로 비유되는 서양교회 전통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의 보편성에 대한 그의 신학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한국교회는 오랜 전통을 지닌 서구교회와 무관한 독자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보편성을 지닌 '한국에서의 교회'(church in Korea)일 뿐이다"라는 그의 고백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12]

이런 통합사적 안목은 그의 글 여기저기 배여 있다. 예를 들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모였을까?"라는 논문에서, 첫 3세기 동안 예배당이 어떤 형식으로 변천, 발전했는지를 고찰한 후 한국교회의 예배당 건축사도 2페이지에 걸쳐 소개한다.[13] 초기기독교와 초기 한국교회라는 서로 다른 맥락이지만 예배당 변천과정을 상호보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사에 나타난 이단, 특히 1930년대, 1960년대, 1990년대 거짓 계시운동을 다루는 논문에서도,

---

10 박응규도 이와 비슷하게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칼빈주의(혹은 개력주의적) 기초, 통합사적 접근, 그리고 성경중심적/교회론적 역사편찬이 그것이다.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 이상규 박사의 학문 여정에 관한 소고(小考)," 102-6.

11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4.

12 이상규, 『해방 전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654.

13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94-95.

초대교회 몬타누스의 거짓계시운동을 언급하며 한국의 종말론적 이단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몬타누스 이단들의 아류"라고 지적한다.[14] 그러면서 "몬타누스 운동이 2세기적 상황에서 일어났듯이 한국교회의 이단들은 한국교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따름이다"라는 부언으로 통합사적 이해를 갖게 한다.[15] 또한, "기독교는 한국에 어떤 기여를 했을까?"라는 글 서두에서 초대교회 역시 당시 사랑과 자비의 시혜자였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다.[16] 기독교의 보편적 가치인 사랑이 본류와 지류에서 각각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통합사적 관점의 역사관은 한국교회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보편적 교회의 전통에서도 단절되지 않는 장점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사관이 갖는 약점을 극복하게 하는데, 교회의 역사를 선교 혹은 기독교 확장사로 이해한 선교사관,[17] 민중을 주체로 기술한 민중주의 사관,[18] 민족교회의 확립이라는 틀 안에 서술한 민족교회사관,[19] 한국민족이라는 토양에서 수용--해석-적용의 과정을 거쳐 토착화된(indigenized) 교회로 이해한 토착교회사관 등이 그것이다.[20] 교회사 연구에 있어 통합사적 접근이 주는 묘미는 또 있다. 바로, 전체 교회사를 한 눈에 이해, 평가할 수 있는 교회사적 혜안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본류와 지류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상호보완적으로 볼 수 있으니 교회사 공부의 즐거움은 더해진다. 이는 교회사 연구의 대중화에도 한 몫을 했다고 평가 내릴 수 있다.

2. 개혁주의 신학

이상규가 추구한 또 다른 주요 원리는 개혁주의 신학이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

14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405.
15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405.
16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444-45.
17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v-vi, "기독교사는 그 본질에서 선교사이다. 또한 반드시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기독교사는 자초지금에 선교사로 일관되어 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한국 개신교사도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18 주재용, "한국기독교 백년사 - 민중사관의 입장에서의 분석과 비판", 「신학연구」21(1979), 199-216.
19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2).
20 이덕주, 『한국 토착교회 형성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0).

도 밝히듯, 이상규는 개혁주의 신학 토대에서 연구하고 가르쳤다.[21] 박용규도 이 점을 언급한다. 이상규의 학문세계를 평가하는 소론(小論)에서, 그가 견지한 분명한 신학적 입장은 개혁주의 전통이었다고 밝힌다.[22] 이상규는 자신의 논문, "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에서, 역사 연구는 역사가의 신앙 이념에 기초하기에 고백주의적 입장을 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23] 그러면서, 16세기 개혁주의적 교회사 연구와 편찬은 당시 로마가톨릭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의 역사서술이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개혁주의적 역사 인식이 바로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신앙고백 사관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상규의 개혁주의 신학은 박윤선의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상규는,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개혁주의 시원으로 박윤선을 꼽는다.[24]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 보스(Geerhardus Johannes Vos, 1862-1949), 리델보스(Herman Nicolaas Ridderbos, 1909-2007)와 같은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국교회에 소개했던 첫 인물이 바로 박윤선이라고 지적한다. 박윤선이 교수 혹은 교장으로 고신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14년 간(1946-60년), 그의 개혁주의 사상이 고신신학의 개혁주의 토대를 이루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상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대학으로 복귀한 1990년, 동료 교수들과 함께 기독교적 기초와 가치를 드러내는 기독교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가치와 이념이 화란의 개혁주의였던 것이다. 그의 개혁주의 신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저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2007)는 그 당시

---

21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71.

22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17.

23 이상규, "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 「역사신학 논총」3(2001), 279-80. 그가 교회사를 신앙고백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내용은, 한국교회사 분야의 대표적 그의 저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2007) 서론에 있다. "필자는 교회사란 그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믿어왔던가에 대한 역사, 곧 신앙고백의 역사라고 생각해 왔다. 그래서 한국교회사란 한국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 왔던가에 대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회사는 신앙고백의 역사인 셈이다. 역사가 국경분쟁에서 '토지문서'이듯이, 교회사는 '신앙고백문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사는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 왔던 가를 보여주는 역사인 것이다."

24 이상규,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 「역사신학 논총」1(1999), 387-424.

학생들에게 가르친 결과로 나온 것이다.[25]

이상규는 개혁주의 신학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하는 것으로, 신자가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개혁신학은 철학적이기보다는 성경적이고, 사변적이기보다는 실제적"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삶의 전 영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는(transform) 문화적 소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그가 추구한 개혁주의 신학의 목표였다.[26]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의 삶의 강조점은 앞서 언급한 그의 책,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마지막 제7장을, '개혁주의와 인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맺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이상규는 고신대학교에 소재한 개혁주의학술원 원장으로 약 4년간(2010.11~2014.8) 봉사한 적이 있다. 재직기간을 포함해 그 시기 전후로, 그는 개혁주의 역사와 신학 관련해 다수의 주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학술원 발행 정기 학술지인 「갱신과 부흥」에 10편의 논문을, 전문도서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에는 7편의 논문을 각각 기고했다.[27] 네덜란드의 고마루스(Franciscus Gomarus, 1563-1641)와 귀도 드 브레(Guido de Brès, 1522-1567), 잉글랜드의 니콜라스 리들리(Nicholas Ridley,1500-1555), 스코틀랜드의 앤드류 멜빌(Andrew Melville, 1545-1622)과 같은 당시 한국

---

25 고신대학교 출판부를 통해 출간되었으나, 개정판(2020년 1월)은 SFC(학생신앙운동) 출판부를 통해 출판되었다.

26 이상규,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한국교회: 신학은 학문인가 삶의 체계인가," 「생명과 말씀」 1(2010), 27-28.

27 「갱신과 부흥」에 기고된 논문은 "교회개혁으로서의 설교," 1(2008), 17-18; "피터 왈도와 교회개혁," 8(2011), 59-75; "브레스치아의 아놀드," 9(2011), 34-37; "개혁교회의 사회적 책임," 10(2012), 177-205; "콘질리아운동(Conciliar Movement)과 교회개혁," 10(2012), 207-11; "한국에서의 개혁주의 신학의 수용과 발전," 11(2012), 95-114; "교회개혁의 역사와 인물4: 존 위클리프," 11(2012), 173-78; "종교개혁과 한국교회 개혁," 12(2013), 66-82; "지롤라모 사바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 13(2013), 161-66; "프라하의 제롬," 14(2014), 161-65이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총서'에 실린 논문은, "칼빈과 교회연합운동," 제1집 『칼빈과 교회』(2007), 43-68; "칼빈과 구호활동," 제3집 『칼빈과 사회』(2009), 177-200; "칼빈과 재세례파들," 제6집 『칼빈과 종교개혁가들』(2012), 175-96; "고마루스와 예정론 논쟁," 제7집 『칼빈 이후의 종교개혁가들』(2013), 118-34; "귀도 드 브레와 네덜란드 신앙고백," 제8집 『칼빈시대 유럽대륙의 종교개혁가들』(2014), 258-74; "잉글랜드의 개혁자 니콜라스 리들리," 제9집 『칼빈시대 영국의 종교개혁가들』(2015), 191-210;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앤드류 멜빌," 제10집 『칼빈이후 영국의 개혁신학자들』(2016), 29-48.

독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교개혁자들을 소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상규는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교회사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학을 가진 이들에 대한 반대 혹은 거리를 두지 않았다. 오히려 존중하며 학문적 교류를 추구해 온 그의 노력은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 11월 22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한국장로교신학회 제24회 학술발표회에서, 이상규는 1960년대까지 한국장로교에서의 교회사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논했다. 그는 이 발제에서, 1960년대 교회사학 연구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 특히 한신대 이장식 박사를 꼽았다. 비록 신앙의 색깔은 달랐지만 타자의 학문적 공헌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부터 약 4년이 지난 2018년 4월 12일, 〈크리스천투데이〉 대담을 통한 두 학자의 만남은, 루터에게 큰 존경심을 보였던 칼빈의 모습을 마치 연상케 한다. 2012년 4월 19-20일 개최된 한경직목사 특별세미나에는 8명의 초교파적 교회사학자들의 발제가 있었는데,[28] 이때 한경직 목사의 삶과 목회활동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는 마지막 발제자인 이상규에게 주어졌다.[29] 고신(高神)의 대표 교회사학자인 그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진 것은, 그의 학자적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적 경향을 가진 이들을 평소 존중해 온 그의 태도에도 기인할 것이다.

3. 사료와 사실(fact)에 충실한 연구

아울러 이상규는 실증주의 역사관의 태도로 사료와 사실에 정직한 연구를 추구했다. 때론 역사가가 사료적 근거 없는 소설을 쓰게 되는 실수 혹은 유혹도 받게 되나, 이상규 박사는 사실에 근거한 정직한 역사연구를 고수해왔다. 예컨대, 인물 연구에서도 사실성이 부족한 하기오그래피(hagiography) 방식으로 사람을 지극히 높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객관적 근거 없는 단순한 추론으로 비판을 남용하지 않았다. 보수적 근본주의 신학자 박형룡의 경우를 보자. 이상규는, 그의 신학은 "한국장로교 신학의 저초를 놓은 인물이자 장로교신학의 보수주

28 김은섭(예장통합), 박명수(성결교), 박창훈(성결교), 서영석(감리교), 안교성(예장통합), 이상규(예장고신), 이은선(예장통합), 임희국(예장통합).
29 이상규, "한경직 목사의 한국교회사적 의의", 「고신신학」 16(2014), 227-40.

의적 전통을 엮어간 인물"이라 평하면서도, 한국교회 연합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한국 장로교회의 분열의 책임을 그에게 묻기도 했다.[30] 한국교회 자유주의 신학의 대변자 김재준의 경우, 이상규는 "1930년대 그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았다.[31] 그 당시 김재준이 리츨, 슐라이에르마허의 신학을 추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와 관련해서도 보자. 그가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못하는 환자에게, "오늘 저녁에 이 담을 넘어 도망가시오" 하면서 뒷문을 열어둬 몰래 나가게 한 미담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상규는 이선의의 월담권면 주인공은 장기려가 아닌 박영훈 의사였으며 1961년의 에피소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32] 그렇다 하더라도 가난한 환자에 대한 장기려 박사의 사랑과 존경심은 더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부언하기도 했다.

손봉호 박사는, 이상규를 일컬어 "책임 있는 학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33] 2000년 장기려기념사업회 총회 특강 때 이상규가 '장기려의 생애와 사상'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기본적 형식만 갖춘 강의와는 달리 학회발표 논문처럼 많은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준비한 그를 보고, 손봉호가 내린 첫 인상의 평가였다. 사료와 사실(fact)에 정직해야 한다는 사학자로서의 기본자세에 충실한 그의 모습을 증명한다.

III. 교회사 연구 분야

이상규는 교회사 전반에 걸쳐서 연구하고 저술을 남겼다. 한국기독교사 관련해서는 한국교회사, 고신교회사, 부산경남지방 교회사, 호주장로교회의 초기 한국선교사이며, 서양기독교사로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교회개혁사, 근현

30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227.
31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213.
32 이상규, "장기려 박사는 월담(越壁)을 권했는가?", 〈한국기독신문〉 2015.10.7.
33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27.

대교회사, 선교사, 장로교회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그가 몸담았던 고신교회 역사,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부산경남지방 교회사, 첫 작품인 16세기 교회개혁사, 본래의 기독교 모습을 제시한 초대교회사,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라 볼 수 있는 호주장로교의 한국선교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고신교회사 연구

대표적인 작품이 『한상동과 그의 시대』(2006)이다.[34] 제목이 시사하듯 한상동과 고려신학교 초기 역사를 당시 신학교에 관계했던 아홉 명의 인물들(주남선, 박형룡, 박윤선, 송상석, 한부선, 함일돈, 박손혁, 한명동, 장기려)을 중심으로 기술한 작품이다. 각각의 인물은 많게는 24페이지 적게는 11페이지의 분량에 생애와 신앙의 자취, 신앙사상도 함께 다루고 있다. 한상동을 "가슴의 신학자", "교회 건설의 신학자,"[35] 주남선을 신앙이 약한 자들과도 함께 한국교회 책임을 공유하려 했던 "통합적인 인물"(p.93), 박윤선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진정한 개혁신학자"(p.133), 박손혁을 "항상 뒤에서, 그리고 숨은 곳에서 일하고자 했던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p.190), 한명동을 "오늘의 고신대학교가 지향하는 기독대학운동의 선구자"(p.204), 장기려를 "이 시대의 참 의사, 참 스승, 모범적인 그리스도인"(p.242)라 불렀다. 그가 사용한 수식 어구(語句)는 각 인물의 전체 삶을 요약하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이상규가 고신교회 역사 중, 특히 태동시대를 조명한 작품은 『교회 쇄신운동과 고신교회의 형성』(2016)이다. 서장에서 밝히듯, "당시의 모든 자료를 섭렵하고 보다 치밀하게 기술했다는 점에서 고신 교회 생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이다.[36] 이 책에서 그는, 1952년 고신의 분열 원인은 경남법통노회의 축출이었지 고려신학교 인사들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제시한다.[37] 보다 정확하고,

---

34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 2006).
35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63, 70.
36 이상규, 『교회 쇄신운동과 고신교회의 형성』(서울: 생명의 양식, 2016), 12.
37 주강식, "이상규 박사의 교회사학 연구,"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157.

보다 사실적인 기록을 추구한 사학자로서의 그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

아주 최근의 작품,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 대담으로 읽는 역사』(2019) 역시 고신교회의 역사를 헤아리게 하는 주요 사료이다.[38] '역사의 현장 속으로 원로와의 대화'라는 〈기독교보〉 기획특집(2011.1-2013.11)으로 직, 간접적으로 고신교회에 기여한 29명의 인물들의 대담의 결과로 나온 책이다. 고령 혹은 고인이 된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기에 역사적 자료로 더욱 가치가 있다.

2. 부산, 경남지방 교회사 연구 개척

"이상규 교수를 언급하지 않고는 부산울산경남 교회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탁지일 교수의 지적처럼, 그는 이 분야의 개척자요 선구자다.[39] 이상규는 연구 동기로, "1985년으로 기억된다... 여기저기 우뚝 솟은 십자가 불빛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이곳 부산과 경남지방에도 교회가 설립되었을까"라는 호기심이라 고백하기도 했다.[40] 하지만,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발로만은 아니었다. 당시 이 지역의 기독교운동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했고, 이런 현실적 필요성이 교회사가로서의 그에게 사명으로 다가갔을 것이다.[41]

그가 애장서로 여기는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2001)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1900년대 초까지 부산과 경남지역 기독교의 연원을 추적한 작품으로 이 분야 최초의 연구 서적이기도 하다.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지방의 첫 수세자(1894년 4월 22일)로 심상현, 이도념, 귀주라는 여성임을 밝혀냈고, 초량교회 설립일을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의 일기에 근거해 1893년 6월 4일로 정정, 김해지방 기독공동체 형성과 운동의 시작을 종전 1898년보다 4년 앞선 1894/5년으로 잡은 것 등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사실들이 많다.[42]

---

38 이상규, 신재철, 김흥식 엮음,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1: 대담으로 읽는 역사』 (서울: 쿰란, 2019).
39 탁지일, "교회사학자, 그리스도인, 현대인 이상규",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109-10.
40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부산: 글마당, 2001).
41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7 각주 1에서, 김의환의 "부산의 기독교(신교)포교 고", 『항도부산』 2(1963), 293-365가 유일한 연구물이라 밝히고 있다.

『부산경남지역 기독교회의 선구자들』(2012) 역시 주요 작품이다. 초기 복음 전도자로부터 6.25전쟁 순교자까지 총 40인을 중심으로 부산, 경남지역 교회사를 다루었다. 인물 중심 연구사로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사진들도 수록하고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큰 책이다. 현대사 연구에서 인물연구(prosopography) 중심의 역사서술이 크게 적용된 때는 1960, 70년대로 알려져 있다. 현대 사학자들은 집합적 전기(collective biography)라는 용어를 선호한 반면 고대 사학자들은 프로소포그라피(prosopography)라 불렀는데, 1970년부터 이 두 용어는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었다.[43] 이 시대 출판된 고대사 분야의 대표적 연구서로는 *The Prosopography of the Later Roman Empire, A.D. 260-395* (1971)와 *Athènes au IIe et au IIIe siècle. Etudes chronologiques et prosopographiques* (1976)를 들 수 있다.[44] 한국사에서 인물중심의 연구가 활발히 일어난 때 역시 1970년대 이후인데, 「월간중앙」 1월호 별책부록으로 발행된 『인물로 본 한국사』(1973), 8권으로 된 『역대 인물 한국사』(1979), 10권으로 구성된 『역사의 인물』(1979)이 당시 발행된 대표적인 연구물이다.[45]

이상규의 한국교회사, 고신교회사, 부산경남지방교회사 연구에서 두드러진 것이 이 인물연구 중심의 방법이다. 김홍만 역시 이상규의 신학사상을 설명하면서 한 가지 특징으로 '전기적 연구들'을 지적한 바 있다.[46] 단행본 혹은 논문의

---

42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86-87, 104, 119-20. 부산 외 다른 지역을 연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진주지역 기독교의 기원과 발전," 「문화고을 진주」 1(2007), 116-140; "영남지역 기독교문화유산과 보존과제," 「종교문화학보」 14(2017), 79-101; "대구/경북지방에서의 삼일운동과 기독교," 『한국교회와 대구/경북지역 3.1운동』 (정류아카데미, 2019), 34-48 등이 있다.

43 Krista Cowman, "Collective Biography," Simon Gunn and Lucy Faire eds., *Research Methods for Hist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84. 문자적으로 '사람의 얼굴묘사'(προσπων-γραφα)를 뜻하는 prosopography는 한 인물의 외부적 특성을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44 A.H.M. Jones, J.R. Martindale, and J. Morris. *The Prosopography of the Later Roman Empire*. Vol. 1, *A.D. 260-3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S. Follet, *Athènes au IIe et au IIIe siècle. Etudes chronologiques et prosopographiques* (Paris, 1976).

45 『人物로 본 韓國史』(서울: 중앙일보사, 1973); 『역대 인물 한국사』, 전8권 (신화출판사, 1979); 일신각 편찬위원회에 펴낸 『역대 인물 한국사』, 전10권 (일신각, 1979). 자세한 내용은 박현숙, "고대 인물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인물사연구」 1(2004), 3-21 참고하라.

46 김홍만, "이상규 박사의 생애와 신학사상," 1054-59. 무려 5페이지에 걸쳐서 그가 주의 깊게 열거하는 인물로는, 주기철, 손양원, 박형룡, 김치선, 박윤선, 한경직, 한상동, 장기려가 그들이다.

형태로 그가 연구한 한국교회사 관련 인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47]

	다룬 인물
한국인 (총71명)	길선주 김광일 김이호 김재준 김치선 명향식 민경배 박손혁 박인순 박윤선 박형룡 손양원 송상석 오병세 오혜순 유재기 이갑득 이근삼 이보민 이약신 이현속 장기려 정규오 조수옥 주기철 주남선 차은희 최성순 한경직 한명동 한상동 (총31명) *서상륜 서경조 고학윤 배성두 정준모 이승규 심상현 심취명 정덕생 박성애 이병수 박신연 김동규 김주관 임치수 황보기 엄주신 최상림 서성희 이현속 조용학 최덕지 손명복 장바울 양성봉 양한나 심문태 윤인구 이일래 조용석 이정심 강성갑 박기천 배추달 홍반식 (총35명) **김메리 백사겸 백과부 이수정 장수철 (총5명)
선교사 (총27명)	덕배시(J.H. Davies) 마라연(C.I. Mclaren) 매견시(J.N. Mackenzie) 맥목사(J.H. Mackay) 민지사(B. Menzies) 배위량(W.M. Baird) 손안로(A. Adamson) 왕길지(G. Engel) 토마스(R.J. Thomas) 한부선(B.R. Hunt) 함일돈(F.E. Hamilton) **기일(J.S. Gale) 편위익(M.C. Fenwick) 셔우드 홀(S. Hall) ※거열휴(H. Currell) 대지안(E.J. Davies) 모이리사백(E.S. Moore) 안진주(M.L. Alexander) 추마전(M. Trudinger) ★거이득(E.A. Kerr) 마포삼열(S.A. Moffett) 모삼열(S.F. Moore) 원두우(H.G. Underwood) 윌리엄 맥켄지(W.J. Mckenzie) 이눌서(W.D. Reynolds) 허을(R.S. Hall) 홀(W.J. Hall)

N.B. 비논문 형태로 다룬 글로, 중복인 인물은 생략됨.
* 『부산경남지역 기독교회의 선구자들』(2012), 『교회 쇄신운동과 고신교회의 형성』(2016)에 기재된 인물들.
** 『한국교회사의 뒤안길』(2015)에서 다루어진 인물들.
※ 『호주 선교사 열전. 진주와 통영』(2019)에서 다루어진 인물들.
★ *KMQ* (2002-5)에 기재된 인물들.

우리가 루터라는 인물연구를 통해 16세기 당시 독일교회와 사회를 이해하듯, 이상규는 한 특정 인물을 깊게 연구함으로써 역사의 현장에 있던 한국 교회 모습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냈다. 그는 인물의 생애, 업적, 혹은 공헌을 단순히

47 신문이나 칼럼 형식으로 기고한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인물의 행위를 인과적으로 분석하였고 그가 살았던 사회적 배경과 척도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며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하며 논했던 『한상동과 그의 시대』(2006)가 이 분야의 대표적 예로 볼 수 있다.

3. 16세기 교회개혁사

16세기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의 대표적 작품은 『교회개혁사』(1997)이다. 서문에서 밝히듯, 월간 「고신」(1991.1-1994.12)에 연재했던 글들을 수정, 보완하여 출판한 책이다. 당시 개혁자들의 관심이 교회의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이 아닌 '교회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눈에 띈다. 그의 역사철학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는, 한국에서 '종교개혁사'라고 부르는 것은 Die Reformation의 일본어 역을 답습한 것이라는 부차적 설명도 더한다. 그가 『교회개혁사』를 출판할 당시 이 분야에서 한국인 단행본 저술은 홍치모 교수의 『종교개혁사』가 유일했다.[48] 1977년에 발행된 것으로 그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제 종교개혁운동으로는 루터(2-3장), 칼빈(4장), 영국과 스코틀랜드(5장)를 다루고 있다.[49] 이와 비교할 때, 이상규는 쯔빙글리와 취리히에서의 개혁운동(3장), 프랑스에서의 개혁운동(7장), 재세례파 운동(8장)까지도 함께 다루었는데 이는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다.[50]

이상규는 같은 주제로 또 다른 두 권은 책, 『종교개혁의 역사』(2016)와 『교양으로 읽는 종교개혁 이야기』(2017)를 출간했다. 전자는 종교개혁 500주년 소책자 시리즈(12권) 중 하나로 특히 청소년 세대를 위해 쓴 것이며, 후자는 일반대중을 위해 간명하고 평이하게 기술한 작품이다. 평소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그의 고심에서 나온 것이고, 깊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48 참고로, 오덕교의 『종교개혁사』는, 이상규의 책이 나온 한 해 뒤인 1998년에 출간되었다.
49 홍치모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I.문예부흥과 종교개혁, II.루터와 종교개혁(1), III.루터와 종교개혁(2), IV.칼빈과 종교개혁, V.영국과 스콧트랜드의 종교개혁, VI.역사가의 업적 및 서평.
50 이상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I.교회개혁이란 무엇인가? II.루터와 독일에서의 개혁운동, III.쯔빙글리와 취리히에서의 개혁운동, IV.칼빈과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 V.영국에서의 개혁운동, VI.존 낙스와 스코틀랜드에서의 개혁운동, VII.프랑스에서의 개혁운동, VIII.재세(침)례파 운동,

풀어내는 역사학자로서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

사실, 16세기 교회의 개혁운동에 대한 이상규의 관심은 이전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19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을 맞추어 출판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100년』이다. 비록 자료집에 불과하지만,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사 첫 문헌이기에 서지학적으로도 중요한 자료이고, 또한 그가 쓴 첫 단행본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51] 이 책이 발행된 1984년은 그가 고신대학에 전임강사로 교수로서의 길을 간 지 불과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16세기 교회개혁자들의 정신과 전통은 그의 전체 학문세계의 기초이자 나침반 역할을 했음을 쉬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 교회개혁에 대한 그의 계속적인 관심은 다음의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세례파의 기원과 교의"(2000),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선교"(2004), "칼빈과 교회연합"(2007), "칼빈과 재침례파"(2012), "귀도 드 브레와 네델란드 신앙고백"(2014), "잉글랜드의 개혁자 니콜라스 리들리"(2015)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사 이후 청교도 역사와 인물, 웨슬리 형제를 필두로 시작된 복음주의 학생운동, 17세기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에 관해서도 글을 남겼다. "윌리엄 케리 이후의 현대선교운동"(2003), "복음주의 운동과 선교"(2011), 『교회개혁과 부흥운동』(2004) 등이 대표적인 연구물이다. 특히, 역사의 과정 속에서 개혁(부흥)과 타락(쇠퇴)을 반복하는 교회의 모습을 재해석하는 장면에서는,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향한 "교회사적 고찰과 반성"을 하게 한다.[52]

4. 초대교회사 연구

주강식은 이상규의 교회사 연구를 세 시기로 구분해 설명한 적이 있다. 초기에 해당되는 1983-89년에는 현대신학과 신사참배문제와 고신교회 신학의 정체성, 호주 유학 이후인 중기(1990-2001년)는 호주장로교 선교사와 부산경남지

---

51 이후 칼빈 연구를 정리한 대표적인 작품은 정성구의 『칼빈주의 도서목록』(1989), 김광욱의 『한국 칼빈 자료 100년사』(1994)이다.

52 박응규,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 이상규 박사의 학문여정에 관한 소고(小考)," 107.

역 연구, 맥쿼리대학교 연구기간부터 시작되는 후기(2002-2017년)는 초기기독교 연구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53] 물론 초대교회 관련 연구논문은 후기 이전에도 간간이 있었지만,[54] 주강식의 분류대로 이상규는 2002년 이후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헤르메네이아 투데이」에 연재된 23편의 논문을 기초로 2016년에는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를 출간했다.

이들 논문들의 특징은 초기기독교를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한데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자. "바울공동체의 사람들"이라는 논문에서, 이상규는 로마서 16장에 거론된 인물들의 이름과 부가적 정보를 단서로 이들의 사회적 신분, 인종, 직업 등을 추적했고, 그 실례로 11명(뵈뵈, 브리스길라, 아굴라,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루포, 가이오, 그리스보, 에라스도)을 분석했다.[55] 이 분석을 바탕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었을까?"라는 글에서는, 초기기독교 공동체는 후견인-가속인의 관계를 중심한 여러 신분적 계층이 혼합된 집단임을 밝히고 있다.[56] 1960년대 에드윈 저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57]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의 인물적 분석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한국교회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본문에 대한 교회사적 해석 방법의 유익을 실감케 했다. "성경을 보다 다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이런 점에서 "성경 중심의 신학을 지향하는 교회사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우병훈의 평가는 결코 지나치지 않았다.[58]

이에 앞서 2006년에 출간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역시 초기 기독공동체의 모습을 재현한 신학적 칼럼들을 모은 단행본이다. 그 동안 한국교회에서 별로 주목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평이하게 서술한 것이 특징인데, 그

---

53 주강식, "이상규 박사의 교회사학 연구", 162-63.

54 이상규, "역사이해에 관한 사적 고찰, 고대 희랍에서 어거스틴까지", 「논문집」 11(1983), 199-299; 이상규, "초기기독교공동체에 있어서 종말론의 문제", 「고려신학보」9(1984), 34-43.

55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13-35.

56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53-72.

57 *The Social Pattern of the Christian Groups in the First Century* (London: Tyndale Press, 1960); "The Early Christians as a Scholastic Community: Part II", *Journal of Religious History* 1.3(1961), 125-37.

58 우병훈,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 성경 중심적, 사회학적, 교회 중심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9 (2017), 257.

주제만 총 42개에 이른다. 초기 기독교를 헬라-로마의 종교 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학문적 공동체(scholastic community)라 규정한 것, 최초의 간호사로 잘못 알려진 뵈뵈(롬 16:1-2)를 1세기 당시 로마사회의 후견인-가속인 제도 속에서 바울을 비롯한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후견인으로 정정한 것,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파라볼라노이(παραβολάνοι, 위험을 무릅쓰는 자)라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붙여진 칭호를 통해 사랑을 실천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규명한 것 등, 처음 접하는 내용들이 많다.[59]

원형의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려는 그의 바램과 연구기간(2002-3년) 에드윈 저지 교수로부터 얻은 영감에서 나온 값진 열매들이다. 한국에서는 사회학적 관점에서 초기기독교 공동체를 광범위하게 다룬 서적이 없기에, 시론적(試論的) 연구라 볼 수 있다. 그의 연구들을 통해 초대교회사 연구에 있어 한국 신학이 크게 발전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5. 호주장로교의 한국선교사 연구

이상규의 가장 중요한 연구분야는 한호관계사라 말할 수 있다. 호주장로교의 한국선교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자신의 박사학위과정 연구주

---

59 이상규,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서울: 한들, 2006), 38-41, 46-50, 103-16. 파라볼라노이의 경우,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같은 어원(παραβάλλω, παραβολεύομαι)의 용어는 신약성경에서도 발견된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παραβολευσάμενος τῇ ψυχῇ)라고 소개한 부분에서다(빌 2:30). 이 표현(παραβολευσάμενος τῇ ψυχῇ)이 제일 처음 발견되는 문헌은 호메르스의 『일리아스』 9.322로, 아킬레스가 말한 부분이다("나는 전투에서 나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αἰεὶ ἐμὴν ψυχὴν παραβαλλόμενος πολεμίζειν).

용어 파라볼라노이는 사실 통시적 연구가 필요한데, 이는 그 의미가 다소 변형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5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총감독 관할 아래 수행원의 역할을 맡았는데 5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종교적, 정치적 일에 개입되면서 난폭한 집단으로 여겨졌다. 대표적인 예로, 416년 키릴과 로마 장관 오레스테스(Orestes) 사이 분쟁으로 인해 소동이 있었을 때, 여 철학자였던 히파티아(Hypatia, c. 350-415)를 벌거벗겨 잔인하게 살해하기도 했다. 또한, 소위 강도들의 회의라 알려진 449년 8월 에베소 회의 때, 군인들과 함께 교회 안으로 진입해 난폭을 행사한 이들이 바로, 이들 파라볼라노이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Alexandre Philipsborn, "La compagnie d'ambulanciers 'parabalani' d'Alexandrie," *Byzantion* 20(1950), 185-90; W. Schubart, "Parabalani,"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40(1954), 97-101; Gary B. Ferngren, *Medicine and Health Care in Early Christianity*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9), 119-20을 참고하라.

제였고 이 분야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다. 초기 내한 선교사 연구에서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그리고 캐나다장로교 혹은 캐나다연합교회와 관련한 연구는 이미 이루어졌으나 호주장로교의 한국선교사는 연구된 바가 없어 이상규는 이 분야 연구를 개척하게 되었다. 결국 이 주제가 학위논문으로 작성되었고, 연구 결과는 단행본, *To Korea With Lov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 (2009)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60] 2009년 호주빅토리아장로교(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총회는, 총회 조직 150주년을 기념하여 교단사를 정리한 연구서, *Reaching Forwaed: From a Rich Heritage to a Certain Goal, The 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1859-2009* 출판했는데, 이 때 이상규의 학위논문을 일부 평이하게 수정하여 출판하게 된 것이다.

이상규는 호주장로교회사 혹은 호주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사와 관련하여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에서 출판한 『왕길지의 한국선교』(2017)의 저술 외에도 『부산의 첫 선교사들』(2007),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이야기』(2012), 『경남지방기독교전래사』(2014), 『호주선교 한국선교』(2016), 『호주선교사열전, 진주와 통영』(2019) 등을 공저하였고, 호주 시드니에서 발간되는 기독교계 저널인 『크리스찬 리뷰』 '호주장로교회의 한국선교 산고'라는 이름으로 100회 연재한 바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학술 논문으로는 5편의 영문 논문과 20여 편 이상의 국문 논문을 발표하였다.[61] 이상의 연구를 통해 호주장로교회의 한국선교사를

---

60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는 Stuart Bonnington, *Reformed Theological Review*, 69,1 (2019), 73-74 등이 있다.

61 영문 논문을 발표연도순으로 정리하면, "J. H. Davies, The First Australian Missionary in Korea," 「고려신학보」 19(1990), 122-38; "Shinto Shrine Issue in the 1930's in South Kyung Province," 「논문집」 18(고신대학교, 1990), 201-41; "To Korea with Love: A Historical Sketch of th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Pacific Journal of Theology*, 3(2000), 28-47; "Politics and religion: The Shinto Shrine Issue and the APM," *Uniting Church Studies*," 21,2(2017), 75-98 등이다.

국문 논문을 발표연대순으로 정리하면, "기독교의 부산전래와 선교운동," 「논문집」 13(고신대학교, 1985), 247-69; "부산.경남지방 첫 수세자는 누구인가?," 「미스바」16(고신대학교, 1990), 130-35;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1880-1900," 「고려신학보」 21(1991), 48-77; "한국에 온 첫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 「미스바」 17(고신대학교, 1991), 86-84; "부산.경남지방에서의 기독교의 전래와 선교활동," 「기독교교육연구」1(1993), 34-69; "부산지방에서의 기독

개척하였고, 호주교회의 역사와 신학, 한호관계사, 호주선교사 분야 연구의 토대를 쌓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규는 역사연구의 한 주요방법으로 통합사적 관점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하면서도 서양교회의 전통에서 이해했고 서양교회사를 한국교회의 눈으로도 해석했다. 보편적 교회라는 그의 신학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역사연구에서 자칫 빠질 수 있는 편협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합사적 견해를 갖게 했다. 이런 점에서 교회사의 보편성을 추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상규의 통합사적 역사인식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틀, 즉 16세기 칼빈, 쯔빙글리를 비롯한 개혁주의 전통에서 사건과 인물을 해석하고 평가했다. 그가 추구한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한 교회사 연구는 단지 학문영역에만 머문 공허한 지식이 아니었다. 그가 풀어헤친 역사적 사건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지혜였고, 그가 발견한 역사 속 인물의 궤적은 현재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교훈을 제시한 삶의 범례였다. 박응규는 이상규 박사의 학문여정을 다룬 소고에서 그 제목을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라 붙였는데,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에 실제적으로 이바지한 그의 학문적 노력을 말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본다.[62] 그는 역사학자로서의 가장 기본자세인 사료에 늘 충실했고 실증주의(positivism) 연구방법의 본을 보였다. 역사가는 그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교전래와 교육, 의료활동(1880-1910)," 「항도부산」 11(부산시사 편찬위원회, 1994), 169-222; "호주장로교회의 부산,경남지역선교활동," 「기독교사상연구」 5(1998), 63-84; "나환자들의 친구, 메켄지," *KMQ* 1.4 (2002), 80-83; "호주장로교회의 신학," 「역사신학논총」, 5(2003), 131-58; "나환자들의 친구, 매견시," 「고신선교」 3(2004), 65-91; "복병산에 묻힌 사람들," 「부경교회사연구」 24(2010), 42-60; "매켄지와 일신병원," 「부경교회사연구」 28(2010), 15-22; "호주장로교 교육선교사 맹호은," 「부경교회사연구」 32(2011), 75-92; "호주장로교회의 의료선교," 「연세의사학」 14.2(2011), 37-53; "호주장로교회와 한국교회," 『한국교회와 호주교회 이야기』 (장로교출판사, 2012), 25-60; "왕길지와 숭실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 8(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2016), 1-33 등이다.

62 박응규,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 이상규 박사의 학문여정에 관한 소고(小考)," 79.

그의 평소 소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의 행간에 있는 사실로서의 역사를 밝혀내려 했다.

그가 이룩한 학문적 성취와 연구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칫 약점이 될 수 있는 점들을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그가 추구한 통합사적(integrative) 관점은 앞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제공한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되나, 용어의 보편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다소 혼란을 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가령, 루이스(Gordon R. Lewis)와 데머레스트(Bruce A. Demarest)의 작품, *Integrative Theology: Historical, Biblical, Systematic, Apologetics, Practical*은 그 부제에서 시사하듯이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과 역사, 변증, 그리고 문화적이며 실천적인 모든 관점에서 다룬 것인데 이를, '통합사적 신학'이라 불렀다.[63] 런던 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 석사과정의 한 프로그램인 'MA in Integrative Theology'는 성경, 전통, 철학, 실천, 교회 등 전체적인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통한 신학연구 과정인데, 역시 이를 '통합사적 신학'이라 명명했다. 즉, 통합사적 연구의 일반적인 의미는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법에 기초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본류와 지류, 보편과 특수를 상호 비교, 설명한 이상규의 통합사적 접근은 오히려 '비교사적 접근법'이라 불러도 무방해 보인다.

다양한 주제를 다룬 그의 초대교회사 논문들은 각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제시해 주었으나, 일부 주제에서는 다소 깊이 있는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가령, 초기 3세기 로마제국 하에서의 박해와 순교를 다룬 논문은 전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주지만, 막시미누스 트락스(Maximinus Thrax, 235-38), 아우렐리아누스(Aurelianus, 270-75), 특히 발레리아누스(Valerianus, 253-60) 황제 아래서의 기독교 핍박을 다루지 않은 점, 가장 중요한 핍박사건으로 볼 수 있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아래서 시작된 10년간의 대 박해를 간략히 논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초대교회사 연구와 관련해 최근 20, 30년 안에 발행된 주요 문헌들이 소개되지 않은 점도

63 Gordon R. Lewis and Bruce A. Demarest, *Integrative Theology: Historical, Biblical, Systematic, Apologetics, Practical*, 3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87-94).

약점으로 보일 수 있다. 가령, 그의 몬타누스 연구에 있어서 이 분야 대표적인 주요 자료인 하이네(Ronald E. Heine), 타브네(William Tabbernee), 트레벳(Christine Trevett) 등 이들 학자들의 작품들은 빠져있다.[64]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를 다룬 그의 논문에서도, 역시 최근에 발표된 발크(David L. Balch), 세사(Kristina Sessa), 아담스(Edward Adams)의 주요 연구들이 참고되지 않았는데,[65] 최근 학계의 연구 동향과 주목받는 이슈들을 제공하는 데는 다소 한계는 있는 듯하다.

물론 이런 소수의 약점들은 이후 계속되는 그의 연구에서 쉽게 보충되리라 본다. 결론적으로, 교회사 전반에 걸친 연구와 저술을 통한 그의 공헌을 다음의 세 가지 연구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호주장로교회의 초기 한국 선교사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경남지방 교회사 연구를 개척했다. 2006년 1월에는 '부산-경남기독교역사연구회'를 창립해 매년 여섯 번의 정기발표회를 통해 꾸준한 연구를 이어갔다. 학술저널 「부경교회사연구」는 2019년까지 83권이 발행되었고, 400여 편이 넘는 연구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신교회역사 연구에도 기여했는데 고신에 속해 있는 그로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고신교회 형성과정을 비롯한 초기역사를 정리했고, 다양한 역사자료를 수집, 편찬했다. 여성 지도자들을 포함한 주요 인물들에 대한 프로소포그라피 연구는 지역교회사 연구와 더불어 미시사(microhistory) 연구의 중요성을 확인시켰다. 셋째, 그가 이룬 초대교회사 연구는 한국에서의 신학발전에 있어 큰 진보를 가져왔다. 헬라-로마 사회적 배경에

---

64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301-18; Ronald E. Heine, *The Montanist Oracles and Testimonia* (Macon, Ga.: Mercer University Press, 1989); William Tabbernee, *Montanist Inscriptions and Testimonia: Epigraphical Sources Illustrating the History of Montanism* (Macon: Mercer University Press, 1996); Christine Trevett, *Montanism: Gender, Authority and the New Prophe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65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73-96; David L. Balch, *Roman Domestic Art and Early House Churches* (Tübingen: Mohr Siebeck, 2008); Kristina Sessa. "Domus Ecclesiae: Rethinking a Category of Ante-Pacem Christian Space." *JTS* n.s. 60.1 (2009), 90-108; Edward Adams, *The Earliest Christian Meeting Places: Almost Exclusively Houses?*. revised ed.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T & T Clark, 2016).

서의 연구는, 한국교회가 원형으로써 초대교회 모습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상규 박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소중히 여기며 삶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간 신학자이다. 그가 이룬 학문적 업적을 보건데, 그는 분명 '교회사의 큰 산'(巨山)이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Cowman, Krista. “Collective Biography.” eds. Simon Gunn and Lucy Faire. *Research Methods for History.*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2, 83-100.

김홍만. “이상규 박사의 생애와 신학사상.” 안명준 외. 『한국의 칼빈주의자들』. 용인: 킹덤북스, 2019, 1037-64.

박용규. “교회사가 이상규 교수의 학문세계.” 「장로교회와 신학」 13(2017), 16-19

박응규. “‘교회를 위한 교회사가.’ 이상규 박사의 학문여정에 관한 소고(小考),” 「개혁논총」 44(2017), 25-63.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1832-1910』.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우병훈. “이상규 박사의 초기 기독교 연구: 성경 중심적, 사회학적, 교회 중심적 측면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19(2017), 245-86.

이상규.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부산: 글마당, 2001.

_____. “교회사 연구와 편찬에 관한 사적 고찰,” 「역사신학 논총」 3(2001), 279-80.

_____.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서울: 한들, 2006.

_____.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부산: 한국교회와 역사연구소, 2006,

_____.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생명의 양식, 2007,

_____. “민경배 박사의 한국교회사 연구.” 「교회사학」 12.1(2013.6), 5-34.

_____. 『해방 전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_____. 『초기 기독교와 로마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_____.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개정판. 서울: SFC, 2020.

_____. *To Korea With Lov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 Melbourne: Presbyterian Church of Victoria, 2009.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편찬위원회. 『한국 교회와 개혁신학: 이상규 교수 정년퇴임 기념문집』. 부산: 카리타스, 2018.

[Abstract]

Dr. Sang Gyoo Lee's View of History and His Studies of Church History

Min Seok Shin
(Sydney College of Divinity, Adjunct Professor, Church History)

Dr. Sang Gyoo Lee is a distinguished theologian and church historian. Until his retirement on February 2018, he published 57 monographs, including co-authored and edited books, and 177 academic essays. It is not surprising that he gained great fame.

Three important principals are found in Lee's entire view of history. First, he used integrative approach to history. He viewed history of the church in Korea in the context of the western church(mainstream), and understood the tradition and legacy of the western church in the eyes of the Korean church(tributary). Second, his comprehension of church history was based on the Reformed tradition of the 16th century and the Dutch Reformed theology. Third, he made constant efforts to describe objective facts by being honest with historical data and facts, and showed a good example for positivism studies.

Lee's study can be explained in the following five categories. First, his stud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Kosin). *Han Sang Dong and His Times*(2006) is his representative study, focused on prosopography. Second, his pioneering research of Christianity of Busan and Kyung-Nam province. Third, the Reformation. He published not only academic books for students and scholars, but also gripping books for the broad public and teen readers. Fourth,

the history of early Christianity in the Graeco-Roman world. *Early Christianity and Roman Society*(2016) is his insightful work. Last, history of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to Korea. *To Korea With Love: Australian Presbyterian Mission Work in Korea, 1889-1941*, revised version of his doctoral dissertation, is a comprehensive work on this theme. It seems fair to evaluate that Dr. Lee was 'a great mountain' in church history, who tried to fulfill his calling on his life and academic field by using his talents and gifts.

Key Words: Sang Gyoo Lee, Church History, Integrative View, Reformed, Australian Mission, Early Christianity